



◀이인경 원장은 환자마다 맞춤형으로 세심한 진료로 차별을 띄운다
▼백산병원에는 지상 5층 지하 1층의 근골격 질환 치료기기를 갖추고 진료를 하고 있다.

방법으로 손꼽힌다.

李敏永원장은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회장으로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李원장은 스포츠한의학이 단지 운동선수나 질병치료와 예방에 국한되지 않고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운동기초질환 등의 성인병 치료와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이용되어 새로운 치료 영역을 개발해 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체질의학이 발달되어 있는 편의점에서 체질의 특성을 운동처방시에 고려한 다면 시의학적 방법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운동처방보다 건실묘한 처방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李敏永원장은 확신한다.

9월 3일부터 8일동안 치러지는 100여개만민속축전행사에도 부표진료를 위해 참가하는 李敏永원장은 오늘도 현의술을 널리 펼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노력으로 밤을 지새고 있다.

(최재권수취)

많은 환자를 무조건 끌어들이는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린 환자의 수를 걱정 수준으로 제한하여 진료와 처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李敏永원장의 운영방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료의 질을 높이는데 지금까지 노력했고 앞으로도 힘을 쏟겠다는 李敏永원장은 환자를 대할때에도 활기차고 밝은 미소를 잃지 않는다. 환자의 치유는 처방전에 다른 약의 효과 못지않게 의료인의 사랑과 정성이 중요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기 때문이다.

환자가 진료와 처방을 받고 병행 문턱을 넘을 때 이미 병의 절반은 낫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게 李원장의 소신이기도 하다.

현재 백산한의원은 특화된 치료기기로 유명세를 더해가고 있다.

한·양방이 양어를 포괄적으로 겸용시킨 치료기법으로 완치율을 높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진료전문화를 피하기 위해 두 명의 부원장을 두고 다양한 치료술을 적용시키고 있는 백산한의원에는 척추간질클리닉, 중풍클리닉, 비만클리닉, 통증클리닉 등의 의료시설을 갖춘 명실상부 종합한방클리닉으로서 그 역할을 토크하고 있다.

관절클리닉의 경우 한약, 침, 뜸, 부항 등 모든 전통적 한방요법에 전기질, 산질과, 저주파, 적외선 등 최신 의료장비를 응용한 채 치료의 극대화를 꾀하는 한편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디스크 및 척추질환에 있어

서도 수술하지 않고 비틀어진 뼈를 바로잡는 한방의 추나(추나)요법으로 통증을 없애주며 마르쳐 고정시켜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회복시켜 준다.

중풍치료에 있어서도 양방병원과 연계한 동·서의학 합진치료를 구축, 재발프로그래밍에 따라 체계적인 치료법을 적용시키고 있다.

비만클리닉 역시 한방에 23종의 감광시차와 생체리듬에 전혀 부작용을 주지않으면서 건강의 회복과 함께 질병으로부터 예방하는 효과를 얻게하고 있다.

이밖에도 백산한의원이 자랑하는 최신 치료기법으로 테이프요법이다.

테이프요법은 피부와 같은 신축성 있는 테이프를 붙여 분임으로써 근육의 긴장을 조절해주고 임과역의 흐름을 원활히 하 중상을 개선시키는 자연 치료법이다.

정확한 검사에 의한 이상부위를 찾아내 증상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붙여 찜질이나 약물치료와 더불어 보조요법으로 병행하면 치료기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고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치료

